

한나와 사무엘

-다섯 번째 이야기-



38Page

나 레 이 셴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는 여러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브닌나는 한나만 보면 화를 내며 못살게 굴었어요.

브 닌 나 아기도 못 낳는 바보 같으니!

나 레 이 셴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눈물이 펄펄 쏟아져서 밥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엘가나가 옆에서 위로해 주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39Page

나 레 이 셴 한나는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했어요. 한나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한 나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레 이 셴 한나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엘리 라는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혼을 냈어요.

엘 리 얼마나 더 취해야겠소? 술을 끊으시오!

한 나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 레 이 셴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위해 축복해 주었어요.

엘 리 그랬군요. 평안히 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나 레 이 셴 한나는 감사해 하면서 그곳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음식을 먹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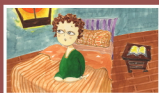


40Page

나 레 이 셴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한나는 곧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때가 되어 아들을 낳자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한나는 아기 사무엘이 젖을 땔 때까지 열심히 사무엘을 사랑하며 길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떼게 되자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어요.



41Page



42Page



43Page



44Page

한 나 제사장님, 저는 예전에 이곳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데려 왔습니다.
나 레 이 션 그리고 한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 레 이 션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많은 자녀들의 어머니가 됐어요.

나 레 이 션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깊은 밤, 그 날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있었어요. 그러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하 나 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 레 이 션 사무엘은 재빨리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사 무 엘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엘 리 아니다, 애야! 난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거라!

나 레 이 션 사무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갔는데,

하 나 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 레 이 션 또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어요.

사 무 엘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엘 리 아니다, 애야!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단니까! 어서 가서 자거라!"

나 레 이 션 그렇게 사무엘이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하 나 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 레 이 션 또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 무 엘 엘리 제사장님 저..

엘 리 아 정말! 나 이제 겨우 잠들었던 말이야!!

나 레 이 션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게 되었어요.

엘 리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ㅎㅎ.. 사무엘아!
가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거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리거라!

나 레 이 션 사무엘이 성전으로 돌아왔을때 또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 나 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45Page

사 무 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겠습니다!

나 레 이 션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선지자가 된 것을 알았어요.

나 레 이 션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들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이렇게 사무엘은 오랫동안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았어요. 사무엘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46Page